

“그날의 상처에 부처님 자비를”

광주 불교계, 5·18 광주항쟁 31주년 추모제 봉행... 다양한 행사서 영령 위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기인 5·18은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매년 추모행사와 나눔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불교계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해령)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18일 국립 5·18묘역에서 유가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 민주영령 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과 해령 스님을 비롯해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이 참여해 전통영산작법 시현을 통해 민주영령의 편안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행사는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에 이어 묘역을 순례하는 봉송이 이어졌다.

해령 스님은 “아직도 그 아픔이 씻기지 않은 영가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의식을 봉행하는 것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대표 현지)주최로 추모법회가 원각사(회주 현고)에서 봉행됐다. 7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법안 스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과 현고 스님의 인사말과 추모 공연이 펼쳐졌다. 추모 공연에는 민중가수 류의남씨와 김경일 시인의 '오월' 추모시 헌송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5·18 당시 활동했던 현고 스님, 이순규 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15일에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최로 망월동 구묘역에서 작은음악회가 진행됐다.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



천도제 봉송을 하는 스님과 유가족들

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와 함께 고, 차와 떡 나눔도 함께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서 전기를 만들어 팝니다

공양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빈정사 법선 스님



지구온난화와 일본 원자력 발전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이제는 안전한 청정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를 전력회사에 판매한다. 40kw는 일반가정 세가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향후 25년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뜻하는 무량광(무량광)발전소라 명명했어요. 이를 계기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간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지요.”

이런 와중에 광주 무등산자락의 한 사찰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사진)이다.

법선 스님은 문빈정사의 공양소 옥상위를 청정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만들었다. 사찰에서 버려두는 공간인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매월 4~5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 '기적의 발전소'라 불리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빛으로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무공해 발전소입니다. 지난 세월 자연환경과 정신적 정령의 공간이었던 사찰이 이제는 미래의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SDN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발전소는 18평 면적의 집열판을 통해 시간당 평균 8.5kw, 하루 3~4시간 정도의 강한 빛으로 만들어진 40여kw의 전력을 한 달간 모으면 약 4~50만원의 기금이 쌓인다. 문빈정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력회사(한전)의 송전망에 접속시켜 생성된 전기

문빈정사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지렁이 학교, 올챙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경과 생태 불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무량광 발전소는 불상을 모시거나 건물을 짓는 불사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불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지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부(富)의 시소를 가리면서 제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곳이다.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원자력의 사용은 우리에게 큰 과보를 남긴다. '친환경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는 무량광발전소의 건립이념처럼 불교계도 친환경에너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량광발전소가 주목받는 이유이며, 불교가 미래 친환경적인 자립산업으로 키워야 할 좋은 아이টে임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과 주민들 함께 손잡고 '얼썩'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위한 한마당 큰잔치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민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다.

불교계 복지관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재)은 관산구 구민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안잔치인 '한마음·한가족·한마당' 행사를 5월 19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영2차영구임대아파트 임대인대표자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여기에 원각사, 길상사, 선덕사 등 지역 사찰과 생명나눔실천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자비신행회 등 불교단체들이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1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패와 각종 상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사물놀이, 모듬북, 민요, 통기타



공연을 이어졌다. 행사 후에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준공식도 열렸다.

행사를 마련한 도재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 힘차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세상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cc 채혈로 새 생명 희망찾기

광주생명나눔, 소아암백혈병 환우 위한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5월 11~13일 나주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학생회관과 17~18일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2011년 아픈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프로젝트 - 3cc 채혈로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11일 나주동신대학교 총장실에서 조형모세포를 이식한 간호학과 2학년 김소희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현지 스님은 “작은 인연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살행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고창 선운사,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비움과 나눔-희향'을 5월 8일 개최했다. '비움으로 가득차고 나눔으로 더해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고창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흥겨운 축하 무대를 마련하고 고창군청과 강호 항공고, 성내하늘방센터에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법만 스님은 “세대간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바자회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비신행회 어르신 식당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밀반찬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자선바자회에서는 회원들이 십시일

반 마련한 옷과 책, 잡화, 가방, 신발 등 1000여점의 물품이 판매됐고,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의 집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봉축 법요식 봉행

김제 금산사(회주 태공월주, 주지 벽산 원형)는 5월 1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봉축 법요식에는 태공월주 대종사를 비롯해 금산사 주지 원형 스님 등 대덕스님들과 김백호 전라북도 신도회장, 김진

수 전북포교사단장, 김원주 전북도지사 각급 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봉축법요식에서 태공월주 대종사는 “불자들은 동일법성의 진리를 알고 나의 불성을 깨우는 동시에 남의 불성을 깨우며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갈 때 모두가 부처님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선암사 효 큰잔치 개최

태고종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웅전 앞마당에서 선암사복지봉사단과 선암사불교대학봉사단이 주관하는 '효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큰스님과 경담 스님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

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최숙자 명창 외 5명의 민요와 박석순 명창의 시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선암사 영산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 시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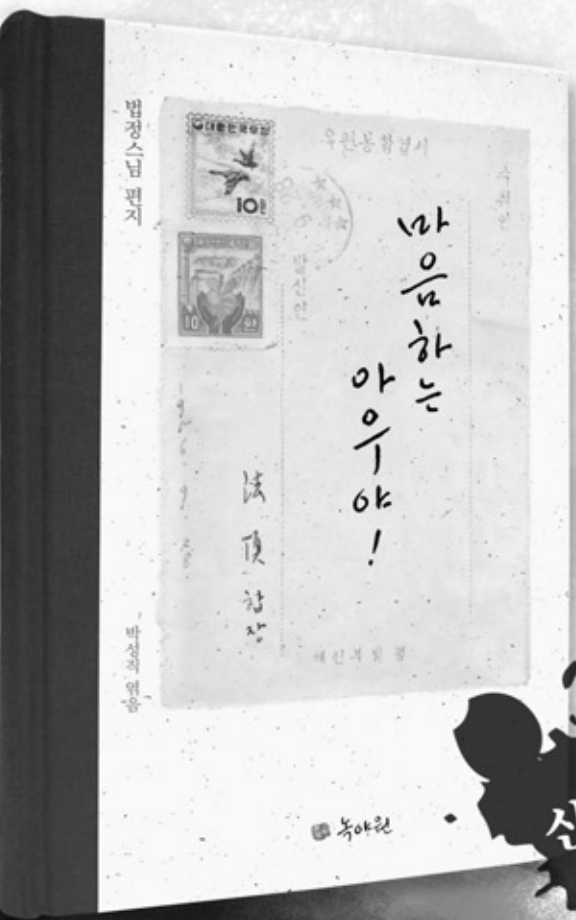
법정스님의 미공개 친필편지

“평생을 걸쳐 써 오신 주옥같은 글들도 모두 말벗이므로 거두어들이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창개구리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다면 모두 쓸데없는 것이라고 꾸짖으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게 주신 스님의 육필肉筆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 엮는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님이 수행자로서 지니신 기상이 더러 어떤 사람들에게겐 지나치게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졌을지 몰라, 스님 내면에 이토록 다감하고 따뜻한 면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위인이 글 중에서-

마음하는 아우야!

출기하는 천년법정의 고뇌와 가족에 대한 애틋함
방향하는 아우에게 들려주는 형님의 진솔한 가르침
이상에 잠은 날의 법정스님이 아끼던 책들과 친필 속에 담긴 것.
‘무소유’ 책이진, 알려지지 않았던 법정스님의 인간적인 애백을 만나다!



박성직 엮음 | 양장·올컬러 친필편지 원본사진 수록
nockyawon@gmail.com/070-8812-7160